
2020년 제4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0. 23. ~ 10. 2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0. 24.	시청률	0.010

【총 평】

충남 천안시의 '수해로 하천제방 유실 민원...신속 복구 계획'과 광주광역시의 '점점 아래로 꺼지는 길?...도로 침하 민원'을 방송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미리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지자체의 빠른 대처가 의미 있었다.

'수해로 하천제방 유실 민원...신속 복구 계획'은 지난 8월 수해로 하천 제방이 유실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눈들 2교의 민원을 발 빠르게 대처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점점 아래로 꺼지는 길?...도로 침하 민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소개하면서 도로 침하의 위험성과 원인 조사 과정을 꼼꼼하게 다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감과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 상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 수해로 하천제방 유실 민원...신속 복구 계획

지난여름 6월과 8월 사이에 1007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천안천의 누들2교 주변의 제방유실 현장을 천안시와 행정안전부가 협조해 신속하게 임시복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말까지는 항구복구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지난 여름 강수량과 긴 장마를 강조해서 주제를 돋보이게 했고 천안천과 누들2교를 지도상에 표기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 유실된 현장의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실 피해의 전모를 밝힌 것도 상당히 매끄러운 진행이었다. 현재는 응급복구만을 해놓은 상황이라 예산 확보 뒤 바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렇지만 도로 노면 균열이 발생한 지점도 취재를 하면서 이에 대한 2차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선제적 조치 계획도 밝힌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 했다.

■ 점점 아래로 꺼지는 길?...도로 침하 민원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가 꺼짐 현상이 심하다는 민원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현장을 점검해 싱크홀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스콘으로 임시 조치 후 도로를 절단해 침하의 원인을 밝힌 후 항구복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방송했다. 특히 도로가 침하된 곳은 자연스럽게 도로가 내려앉은 곳으로 도로 아래로 하수도, 지하관로 등이 지나가는 것이 없고 산을 깎은 밑 부분이어 싱크홀 등의 큰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곳으로 예상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시민의 녹취록 분량을 그대로 살려 현장감이 높았고, 이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의 제보여서 집중력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제작진이 해당 도로를 운행하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11. 24.	시청률	0.000

【총 평】

‘노(老)학자 부부의 동행’은 이근후·이동원 부부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해보고 코로나 시대 가족관계, 노후의 보람된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성찰해보았다. 가족공동체, 은퇴 이후의 삶 등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던지는 해안 등을 전해주었다. 특히, 고통 해소, 행복권, 용서, 상호 존중 등 코로나 시대 올바른 자세를 제시해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노부부의 한지붕 대가족 ‘3대 가족 5가구 신가족 공동체’ 경험을 통해 핵가족시대 가족끼리 ‘같음’과 ‘다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지를 소개해 몰입도를 높였다. 노학자 부부의 동행, 코로나19시대의 바람직한 가족관계, 한지붕아래 3대 가정의 애환, 노후의 삶 등으로 구성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해준 노부부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대목이 많았다. 특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인물의 인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좌표를 제시한다는 기획 방향은 합목적적이고 의미 있었다.

이근후·이동원 부부의 첫 만남과 근황, 집필의 배경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인물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됐다. 연애시절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가족 관계 등 이야기의 흐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매끄럽게 잘 이어져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귀에 선선하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 3대 다섯 가족이 모여 사는 가족공동체의 존재는 요즘 흔치 않다는 점에서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특히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가족공동체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했다”는 노부부의 이야기는 되새겨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복해야할 권리도 안고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 심리방역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거리는 가까워야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삶의 고통은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됨으로 이를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부의 개인사,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도 감동으로 다가왔다. 학문적 동지로서의 동행, 시력을 잃으면서도 계속된 저술 활동의 집념, 동지이자 동반자인 노부부의 소회 등이 소개됐다. 또,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인물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진정성이 느껴졌으며,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나아가 남은 생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한 입장은 큰 울림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0. 24.	시청률	0.019

【총 평】

‘NOW 北’은 최근 북한의 80일 전투돌입 배경과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 북한 주민의 미스터 트롯 열풍을 다룬 기획이 돋보였다. ‘단박톡’은 북한간부에 대한 부정부패 단속, 북한에 뿌리박힌 뇌물경제 실태와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북한의 세대교체 배경과 목적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또,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해결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분석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높였다.

‘NOW 北’에서 다룬 ‘80일 전투’와 ‘단박톡’에서 다룬 ‘북한 최고위 간부 교체’와 관련된 이슈는 시의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였고, 전후 상황을 잘 따져 북한 당국이 안고 있는 고민의 실체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NOW 北’은 북한이 ‘80일 전투’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경제난이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북한이 경제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었다.

80일 전투는 경제난에 대한 전투로 10월 5일부터 내년 초 노동당 8차 대회까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전국 전민, 전당 차원의 총력전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해복구 및 수해 이재민 돌보기, 그리고 전쟁 노병 등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필품 공급, 또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작물 수확에 집중하는 등 3대 부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미스터 트롯’이 인기를 끌어 북한 사회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은 경제난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정서를 잘 대변해주는 내용이었다. 북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미스터트롯을 챙겨보고 유행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종의 과시이기도 하다. 이에 북한 보위부에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단순 문화와 가요는 걸려도 처벌이 미약하다. 오히려 단속하는 보위부원들이 뇌물을 받고 봐주기도 하며, 일부 보위부원 가족은 한류 문화 유통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단박톡’은 북한의 뇌물 관행을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뇌물만 주면 신분도 바꿀 수가 있을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뇌물고이기는 일상화가 되었다. 북한에게는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계층, 신분의 토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뇌물의 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고 주민들의 약점을 잡아 정기적으로 뇌물 상납을 받는 사례도 있다.

또, 김정은이 최근 단행한 최고위간부 교체와 관련한 내용은 북한 체제의 큰 변화를 의미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간부, 인사개혁을 통해 향후 북한은 아시아의 스위스를 꿈꾸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첫걸음으로 간부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1. 24.	시청률	0.019

【총 평】

인천광역시 덕적도의 풍경소리를 담아낸 ‘덕적도, 섬마을 가을 기행’을 방송했다. 소리꾼의 눈으로 보는 섬과 산, 바닷가의 풍광과 함께 바스락거리는 대나무 숲길, 타오르는 모닥불, 바닷물이 들고나는 몽돌 해변의 독특한 소리 등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덕적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파도소리의 물결 부딪는 소리가 신선하고 설렘을 가져다주었다.

소리꾼 장서윤씨를 통해 덕적도의 곳곳을 돌아보며 때로는 판소리와 함께 멋진 가을 낭만 여행을 펼친 시간이었다. 젊은 소리꾼의 진도아리랑, 사철가 등의 판소리가 덕적도의 자연 풍광과 함께 전해졌다.

【구성 및 내용】

판소리꾼 장서윤씨를 통해 덕적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덕적도의 파도소리, 덕적도 아낙네들의 노랫소리, 장서윤씨의 다양한 즉흥 판소리가 아름답게 전해졌고 장서윤씨를 통해 가을 낭만의 멋진 여행을 시청자에게도 선사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은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서부터 배를 타고 덕적도로 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덕적도 입도를 시작으로 비조봉에서 내려다보는 덕적도의 풍경과 판소리 한 소절을 선보였다. 이 밖에 서포리 해변 캠핑, 고구마 캐는 섬 아낙네들, 능동자갈마당을 소개했다.

덕적군도를 흔히들 '바다 위의 별'이라고들 부른다. 그 별들의 어미 섬에 해당하는 덕적도(德積島)는 인천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면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섬이다. 덕적도는 서포리해수욕장의 드넓은 모래사장과 천연의 해안사구, 염생식물 군락지, 그리고 해변을 둘러싼 방풍림 해송은 덕적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특히 덕적도의 매력은 섬이라고 해서 바닷가, 갯벌 같은 것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장서윤 소리꾼을 진행자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풍스럽게 이끌어 기억에 남았고, 중간에 섬 주민들과 친구도 등장했는데, 시끌벅적한 느낌이 아니라 고즈넉한 느낌이 들어 전체적인 흐름과 자연스럽게 잘 이어졌다.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촬영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비조봉에 오르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비로봉에 올라 덕적군도의 섬 등을 바라보며 ‘사철가’를 불렀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는 현장에 동참해서 고구마를 얻기도 하고 그 답례로 ‘진도아리랑’을 들려주면서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덕적도 해변의 아침 풍경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새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아침의 청량한 느낌을 주었고, 술방울과 소라껍데기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장면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다. 능동자갈해변은 바닷물의 움직임에 신비한 소리를 내는데 보통의 해변과는 다른 풍광이었다. 전체적으로 대나무 숲길을 지나는 소리, 모닥불 타는 소리, 자갈 해변의 소리 등이 반갑게 다가왔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0. 25.	시청률	0.001

【총 평】

‘K-방역 을 돌아보다’는 지난 10개월의 과정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K방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국격 상승으로 이어진 비결을 분석하는 한편 다시 찾아온 재확산 위기 극복과 독감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해결돼야하는지를 촘촘히 점검해 제시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모델의 우수성을 검사와 확진, 역학 추적, 격리 치료 등 3분야로 나눠 분석한 점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K방역의 우수성 속에서도 시스템 보완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해외 언론과 전문기관에서 K방역의 우수성을 인정한 보도와 인터뷰 내용을 다룬 구성이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다. 특히, 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모습에서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영상의 변화가 ‘코로나 극복기’의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용을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국내도 크고 작은 부침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신종 전염병과 싸우고 있다. ‘K-방역을 돌아보다’는 이제 위기와 극복의 상징이자 국가 브랜드가 된 그간의 K-방역을 돌아보았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재유행, K-방역 모델의 주요 3요소인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시스템의 소개,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유행의 대비에 대해 짚어보았다.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5천만명을 향해 가는 최근, 우리나라는 하루 확진자 두 자리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K방역의 성공적 결과로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의 3가지 과정이 K방역의 주요 모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반,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을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했다. 3월 당시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고 마스크 판매 장소 및 수량의 정보를 공유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는 광복절 기간 교회 등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다시 유행이 되었다. 더불어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또한 높아져 방역당국의 안정적 통제가 힘들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추석연휴를 전후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광화문 광장 봉쇄와 인근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 등, 정부와 방역당국, 국민들의 협조 속에 확산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었다.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의료진 부족을 대비해야 하고 기존 K-방역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에 들어서며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동시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0. 25.	시청률	0.187

【총 평】

밥보다 법 '쌓인 세월만큼 숙제도 많다, 황혼 이혼'은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문제까지 이혼에 얽힌 다양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 전까지만 해도 동거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높았지만, 2012년 이후는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한 집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아 분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우자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일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 생활 상식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 유익했다. 또, 아내의 입장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렸다고 생각되어 균형감도 좋았다.

【구성 및 내용】

■ 아버지의 효도병

효자 아들인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방법과 재산분할 가능성을 다루어 의뢰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퇴직 후 아내의 무시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로 상속 재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퇴 이후 펼쳐지는 가족간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지적해 공감되었다.

■ 외도의 시효

15년 전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아내의 사례로 정당하게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했다. 특히 이혼의 쟁점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덧붙여졌다. 또 알콜중독 치료 판결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혼 절차가 이루어질지 미리 예상해 보았다.

■ 조혼과 이혼의 차이

조혼의 법적 효력과 이혼과의 차이, 별거와 가출의 차이 등을 다루었다. 특히 조혼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내용과 조혼 합의 후 재산을 제대로 분할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 여부를 꼼꼼히 따져주어 정보를 제공했다.

■ 무엇이든 물어볼 法

가족의 우편물을 뜯어보는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살펴보았다. 배우자라도 상대의 우편물을 뜯어보는 것은 비밀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금융거래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다 조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0. 25.	시청률	0.068

【총 평】

살어리랏다 '지리산 하늘호수에 누워 살아요'는 지리산 골짜기 중촌마을에 숲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하늘호수차밭쉼터'를 운영하는 부부의 일상을 소개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사는 귀산 28년차 자연인 부부의 지리산 찬가와 일상의 행복론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차밭을 가꾸고 둘레꾼들에게 차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산처럼 자연처럼 욕심없이 사는데 있었다.

산골 쉼터 부부의 '소확행' 일상의 행복이 꾸밈없이 도시인들에게 삶의 건강함을 선사한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또, 땀나무로 군불을 쥘이는 지리산 밤 풍경, 산나물을 뜯고 그네를 타는 부부, 누우면 달과 별이 보이는 눈물 나는 방, 녹차잎 부침개를 요리하는 아내, 등산객들과의 정겨운 담소 모습 등 지리산 산골 쉼터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성 및 내용】

지리산 둘레길 14코스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경남 하동군 중촌마을에서 '하늘호수차밭쉼터'를 운영하는 귀산 28년차 부부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다루었다. 특히, 무리 없이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드는 사람들과의 교감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다.

60대 중반 부부가 지리산에 살며, 산을 즐기며 둘레길 차밭쉼터를 운영하며 차도 팔고 담소도 나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사는 자연인 부부의 스토리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더 불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인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만이 아닌 남과 함께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몰입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두 부부의 말과 표정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읽어낼 수 있어 좋았다.

아침 일찍 나선 발걸음, 곳곳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아침밥상에 오르고 녹차 한잔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 이후 쉼터로 출근하는데 유일하게 라디오만 들을 수 있다. 쉼터 주변의 녹차밭을 일구는 것이 부부의 주요 일과 중 하나이다. 잎은 차로 쓰며, 열매는 기름을 짜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쉼터 손님이 드문 시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텃밭에서 나는 녹차부터 부추, 각종 채소 등이 들어간 녹차전과 녹차를 곁들인다. 어둠이 내린 쉼터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수제비를 만든다. 밤새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문득문득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상, 환경이 새롭게 느껴질 때도 있다.

산골쉼터 부부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행복론과 인생철학이 녹아내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스토리텔링이 치유효과를 가져왔다. 아내는 "산복이 있다", "남편복이 있다" "고맙고 즐겁고 기쁘다" 며 연실 감탄사를 털어놓고, 남편도 "자연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0. 25.	시청률	0.000

【총 평】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제9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니메이션 작가’ 세계를 자세하게 다뤘고, 취업과 직업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일자리 정보와 면접 대응, 작품 준비, 스토리텔링법 등 애니메이션 작가에게 필요한 기획과 제작 관련 실속정보, 취업 세계 등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젊은 취업자들에게 관심 높은 직업군이기도 하지만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직업군이라 매우 흥미로웠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다뤄 유익하였다.

청년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과 함께 알찬 정보 위주의 방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애니메이션 작가, 그 직종이 궁금하다’에서 취업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개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애니메이션 작가가 된 계기 등을 다루었다. ‘달려라 신입사원’은 직접 업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취업 선배의 모습과 회사 내부 소개, 회사 동료 소개를 하고 애니메이션 작가로서의 하루 일과를 취재했다. ‘선배의 취업 꿀 조언’은 취업선배의 합격 비법과 댓글타임을 통해 대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어서와, 이런 면접은 처음이지?’에서는 두 명의 지원자와 면접을 거친 뒤 회사대표와 선배의 면접에 조언까지 함께 다루었다.

‘취업선배’ 1년차 애니메이션 작가 성원영씨는 ‘엄마까투리’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보통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언제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지는 필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해 애니메이션 작가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었다. 선배의 하루 일과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작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액팅룸에서 대사 리딩과 스토리 구상 등 실제로 일하는 모습과 동료들과의 회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흥미로웠다.

모의면접에서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약간의 긴장감이 몰입력을 높였고, 고등학생 면접자들이지만 일반 면접자들과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 부러지게 답변을 잘 해주었다.

애니메이션 작가로 취업에 성공하는 비법으로 첫째 혼자서 글 쓰지 말라, 둘째 인턴쉽과 공모전을 놓치지 말라, 셋째 해외 애니메이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라 등을 강조했는데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다.

특히, 애니메이션 회사를 소개하다보니 애니메이션이 수시로 등장해서 볼거리를 제공했고 진행자가 타조 분장을 하고, 취업 선배의 얼굴에 진행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컴퓨터그래픽 효과를 많이 사용해 재미를 주었다.